***Session 12 The Power and Ministry of the Spirit (Jn. 14:16-31)* 제 12 강 성령님의 능력과 사역 (요 14:16-31)**

1. Review: The Spirit will answer our prayer to love Jesus More
복습: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1. Jesus connected His promise to answer prayer in 14:13-14 to the Spirit empowering them to love Him in 14:15-16. Pray with faith for the Spirit to impart the Father’s love for Jesus in you (17:26).
	예수님은 요14:13-14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14:15-16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연결하셨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라 (17:26).

14“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15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16the Father…will give you another Helper…” (Jn. 14:14-16)
14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15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16… 그[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요14:14-16)

* 1. It takes the power of God to love God. Jesus defined loving God as being deeply rooted in a spirit of obedience (14:15, 21, 23). The call to love God is the point repeated most by Jesus in John 13-17. He linked loving God to obeying God five times in John 14 (14:15, 21, 23, 24, 31).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의 영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라고 정의하셨다 (14:15, 21, 23).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은 요13-17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요1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다섯 번이나 연결하셨다 (14:15, 21, 23, 24, 31).
	2. Jesus never apologized for calling people to holiness. He contends for our liberty and greatness. Serving Jesus faithfully and denying our lustful desires are “the theater” that God chose for us to express our love to Him. Each of us has a different struggle according to our personality and life circumstances. We each have a different *“assignment,”* from which we offer Him our gift of love.
	예수님은 사람들을 거룩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와 위대함을 위해 싸우신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우리의 정욕적인 욕망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 택하신 “극장” 이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성격과 삶의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치는 것으로부터 다른 “**임무**” 를 가진다.
	3. John 14:12-27 gives details on how we are to participate in the transforming union with God.
	In John 14, four things come together as the fruit of our union with God—*answered prayers* (14:12-14), empowered to walk in *obedient love* (14:15-20), enjoying *God’s manifest presence* (14:21-24), and being *taught by the Spirit* (14:25-27). God designed all this for us in His kindness.
	요14:12-27은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내용을 제공한다. 요14장에서, 네 가지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열매로써 함께 나타난다. 즉, **기도 응답** (14:12-14), **순종하는 사랑** 안에서 걸을 수 있는 능력 (14:15-20), **하나님의 현현한 임재**를 누림(14:21- 24)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14:25-27).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친절로 디자인 하셨다.
1. the Spirit empowers the redeemed (Jn. 14:16-18)
성령님은 구속 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요 14:16-18)
	1. Jesus is so zealous for us to love Him that He sent us the Spirit to supernaturally teach, inspire, and empower us to love God with a spirit of obedience and to participate in union with God (14:16-20).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가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능력을 주셨다 (14:16-20).

16“I will pray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hat He may abide with you forever —17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dwell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18I will not leave you orphans; I will come to you.” (Jn. 14:16-18)
16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17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18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14:16-18)

* 1. ***I will pray the Father***: Jesus continues to ask the Father for things that the Father has promised. This is the model for the believer—to ask for things that God has promised.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아버지께 계속 해서 구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믿는 자를 위한 모델이다.

13“If you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heavenly Father give [a greater measure of]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Lk. 11:13)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 1.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he Father set us up for success by sending us the ultimate Helper to empower us (14:16, 26). The Spirit will help us to the degree that we ask Him. Weak people can be used by the Lord to do miracles (14:12), pray in a way that He answers (14:13-14), walk in obedient love (14:15), experience His manifest presence (14:21-24), and be taught by the Spirit (14:25-27) because Jesus sent the Helper to us. Thus, this lifestyle is not out of reach for us.
	**그분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 궁극적으로 보혜사를 보내어 우리로 성공 하도록 세우신다 (14:16, 26).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는 만큼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연약한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 기적을 행하도록 사용될 수 있고 (14:12), 그분이 응답하실 방식으로 기도하고 (14:13-14), 순종의 사랑 안에서 걷고 (14:15), 그분의 명백한 임재를 경험하며 (14:21-24), 성령님에 의해 가르침 (14:25-27)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에, 이 생활 방식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2. ***Another Helper***: The Greek word ***paraclete*** is translated *“Helper”* (NAS), *“Counselor”* (Holman), *“Advocate”* (NIV), or *“Comforter”* (KJV)*.* The term refers to a *legal counsellor*—an advocate who represents someone in court. The verbal form ***parakaleo*** is often translated as “*to call alongside”*
	in order to strengthen, help, or to represent one as in the Roman legal system of that day.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 파라클레테는 “**도우시는 자**”(NAS), “**상담자**”(Holman), “**변호자**”(NIV) 또는 “**위로자**”(KJV)로 번역된다. 이 용어는 법정에서 누군가를 대표하여 변호하는 **법률 상담자**를 의미한다. 동사 형태의 파라칼레오는 그 당시의 로마 법 체계에서 강화하거나, 돕거나 ,누구를 대표하기 위해 종종 "**옆에 부르다**"로 번역된다.
		1. In secular Greek, a ***parakletos*** was a legal assistant or advocate who helped one who was being charged in court as criminal—the advocate spoke up for them as a defense attorney to represent their client who was being charged and to plead their cause.
		세속적 그리스어에서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 범죄자로 기소된 사람을 돕는 법률 조수 또는 변호인이었다. 변호인은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고 그들의 소송을호소하기 위해 변호인으로서 그들을 대변했다.
		2. Jesus is the first Paraclete who helped His first apostles. The Spirit is ***“another”*** Paraclete (14:26; 15:26; 16:7) who took Jesus’ place after His death. The title *parakletos* continues to refer to Jesus as our advocate (“lawyer”) before the Father in the courts of heaven (1 Jn. 2:1).
		예수님은 첫 번째 사도들을 도운 첫 번째 파라클레데 이시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 “**또 다른**” 파라클레테 (14:26; 15:26; 16:7) 이시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칭호는 하늘 법정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 (“변호사”)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요일 2:1).
		3. Jesus makes intercession for us before the Father (Heb. 7:25), and the Spirit prays within us (Rom. 8:26). The Spirit prays for, empowers, teaches, comforts, and guides the redeemed.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증보하시고 (히 7:25),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 (롬 8:26). 성령님은 구속 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인도하신다.

26The Spirit helps in our weaknesses. We do not know what we should pray for…the Spirit Himself makes intercession for us with groanings which cannot be uttered. (Rom. 8:26)
26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8:26)

* 1. ***He may abide with you forever***: The Spirit came on various leaders under the old covenant on a temporary basis (Ps. 51:11). In the new covenant the Spirit dwells with and in the redeemed forever
	**성령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성령님은 옛 언약 아래 여러 다양한 지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셨다 (시 51:11). 새 언약 안에서 성령님은 구속하신 자 와 함께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신다.
	2. ***The Spirit of truth***: Jesus identified the Helper as “the Spirit of truth” (14:17; 15:26; 16:13) who communicates truth to His people. He guides them into the truth about God, His Word, His will,
	their personal life, ministry, and loved ones, including things about the future (16:13), and more.
	**진리의 영:** 예수님은 보혜사를 당신의 백성에게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영”(14:17; 15:26; 16:13)으로 동일시 하셨다. 성령님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백성들의 개인 생활, 사역, 미래에 관한 일을 포함한 사랑하는 사람들(16:13) 등 많은 것들에 대한 진리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17“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dwell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Jn. 14:17)
17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14:17)

* 1.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Jesus highlighted two aspects of the Spirit’s ministry that unbelievers cannot receive—they do not “see” or “know” Him—they cannot recognize His activity.
	**세상은 받을 수 없는 분**: 예수님은 성령님 사역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을 “보거나” “알지 못하여”받을 수 없고, 그분의 활동도 알아볼 수도 없다.
	2. ***You know Him***: Believers can “know” or recognize the Spirit’s activity in their life and in the lives of others. They perceive His activity—including His works, “whispers,” and prophetic impressions.
	 **너희는 그분을 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성령님의 활동을 “알” 거나 인식할 수 있다.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 즉 “속삭임”, 예언적 인상을 포함한 성령님의 활동을 인식한다.
	3. ***He dwell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The Spirit lives “in” the redeemed impacting their mind and heart or emotions (Heb. 10:16) and is “with” them—affecting their circumstances, etc. (Isa. 52:12).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거하시고 당신 안에 계실 것이다**. 성령님은 구속 받은 자들의 “안에” 거하셔 생각과 마음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히 10:16)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신다 (사 52:12).

16…“I will put My laws into their hearts, and in their minds I will write them”… (Heb. 10:16)
16…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 (히10:16)

12…for the Lord will go before you, and the God of Israel will be your rear guard. (Isa. 52:12)
12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사52:12)

* 1. ***I will not leave you orphans*** (14:18): Jesus will not leave His people as vulnerable orphans who often feel alone and helpless without direction, protection, provision, or a sense of belonging.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14:18):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인도, 보호, 공급, 소속감 없이 종종 외롭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취약한 고아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2. ***I will come to you***: Jesus applied His promise to “come to them” in three ways. First, it refers to His second coming pointing back to what He said in Matthew 24:30 (14:3), next by appearing to them physically soon after His resurrection (14:19; 16:16-17; 21:1-14; Acts 1:3), and finally by coming to them spiritually by dwelling in them through the Spirit given at Pentecost (14:16-18, 23, 26; 16:13).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오리라” 는 당신의 약속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적용하셨다. 첫째, 그것은 마태복음 24:30(14:3)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말하며,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하신 후에 육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14:19; 16:16-17; 21:1- 14; 사도행전 1:3),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순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써 영적으로 그들에게 오셨다 (14:16-18, 23, 26; 16:13).
1. Jesus’ disciples are called to live in deep union with god (Jn. 14:19-20)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연합 안에서 살도록 부름 받았다 (요 14:19-20).
	1. Because of Jesus’ resurrection life, His people will live forever. Jesus made a dramatic declaration calling His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union that He enjoyed with His Father as a Man (14:20).
	We can engage in conversation with Him with these promises saying, “Thank You, show me more!”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당신의 아버지와 누렸던 연합에 참여하도록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극적인 선언을 하셨다 (14:20).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에 “고마워요, 더 보여주세요!” 라며 예수님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19“A little while longer and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because He would die the next day],
but you will see Me [after His resurrection]. Because I live, you will live also [be resurrected]. 20At that day you wi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in Me, and I in you.” (Jn. 14:19-20)
19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다음 날에 그 분을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분의 부활 후에]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20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14:19-20)

* 1. ***At that day you will know***: The disciples knew that Jesus was in the Father, and they were in Jesus, and Jesus was in them. “That day” refers to the day of His resurrection on Sunday and also the day of Pentecost (Acts 2). Jesus’ resurrection appearances would convince them of His deity—that the He was in the Father. These appearances would also convince them of their union with Jesus.
	**그 날에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저들 안에 계신 줄을 알았다. “그 날”은 주일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또한 오순절을 의미한다 (행 2장).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신성, 즉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납득시켜 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또한 예수님과 그들의 연합을 확신시켜 줄 것이다.
		1. By saying, “You are in Me” and “I in you” in 14:20, Jesus  added to what He said in 14:10,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예수님은14:10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고 말씀하신 것에다가14:20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을 더하셨다.
		2. John 14:20 is one of the most glorious statements in the Scripture—He applied the relational reality that He enjoyed with the Father in His humanity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This is the climactic point of John 14. It is how we overcome trouble and mature in love (14:1, 15).
		요14: 20은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술 중 하나이다.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아버지와 누렸던 관계적 실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절정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사랑 안에서 성숙해 지는 가이다 (14:1, 15).
	2. Jesus developed what He taught here in 14:20 by what He taught in 15:5-7.
	예수님은 여기 14:20 에서 가르치신 것을15:5-7 에서 가르치시며 발전시키셨다.

5“…He who abides in Me, and I in him, bears much fruit...7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you will ask what you desire, and it shall be done for you.” (Jn. 15:5-7)
5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7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15:5-7)

* 1. ***You in Me***:Born-again believers are “in” Jesus. We “abide in Him” by talking with Him, trusting in Him, and obeying Him (15:5) and by our words and thoughts being “in” His heart. The very fact that He answers our prayers and gives us eternal rewards related to our words and deeds assures us that they are “in” His heart—that they move His heart and that He delights in them.
	**내 안에 있는 너희들:** 거듭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15:5)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해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련되어 영원한 보상을 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다는 것, 즉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2. ***I in you***:Jesus is “in” a believer. He lives or “abides in us” by His Spirit dwelling in our spirit, by releasing the Spirit’s activity in our heart and mind, and by His words “living in” our heart (15:7).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에 의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님의 활동을 풀어주심으로써, 그리고 우리 마음에 “거하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 거하시거나” 사신다 (15:7).
	3. The Spirit is the Helper who came to lead into transforming union with God. The Spirit helps us to develop some of the elements that describe the union between the Father and Jesus—in their *mind* (thoughts), *heart* (feelings), *will* (values), *words* (speech), and *works* (actions). We are to seek to think, feel, value, speak, and act in ways that agree with God, knowing that this deeply moves the Father’s heart. Over time, what He thinks, feels, says, and does will fill our hearts.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변화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보혜사이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연합을 설명하는 몇 가지 요소, 즉 **생각** (사고), **마음** (감정), **의지** (가치), **말** (언어), **행위** (행동)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동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다는 것을 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울 것이다.
	4. Thoughts and words in agreement with the Spirit help bind people to God and to each other. Thoughts and words are two of the main elements in the union between Father and Son and between Jesus and His people. We grow spiritually as we exert effort to bring our thoughts and words into unity with God’s; this is foundational to abiding in Christ (15:4-7; cf. Ps. 19:14).
	성령님과 동의하는 생각과 말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로 결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과 말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연합에서 주요한 두 가지 요소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기초가 된다 (15:4-7; 참조, 시 19:14).

14“Let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able in Your sight…”
(Ps. 19:14)
14…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19:14)

1. All Believers are called to enjoy God’s manifest presence (Jn. 14:21)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현현한 임재를 즐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요 14:21).
	1. Jesus called us into union with God by experiencing His presence on our mind and emotions.
	Jesus linked obedient love to our capacity to experience God’s manifest presence (14:21, 23).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은 순종의 사랑을 하나님의 현현한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우리의 능력과 연관시키셨다 (14:21, 23).

21“He who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it is he who loves Me. And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manifest Myself to him.” (Jn. 14:21)
21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14:21)

* 1. ***It is he who loves Me***: This one of the most glorious things that Jesus can say to person.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이다.
	2.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The Father loves the life choices and the fruit of His obedient children, and He enjoys His relationship with them in a heightened way.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아버지는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의 선택과 열매를 사랑하시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고귀하게 즐기신다.
		1. Jesus spoke of two expressions of God’s love—***God so loves the world*** ***in fullness*** (Jn. 3:16).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1 Jn. 4:19). The Father loves all people in the world redemptively in the sense of valuing, caring for, and pursuing them. But ***He loves or enjoys His relationship with those who obey Him***. He has pleasure in those who value His love as evidenced by their obedience and He manifests His presence in them in a greater measure.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신다** (요 3:16).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 (요일 4:19).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고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구속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하시고 즐기신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들 안에 더 큰 임재로 나타내신다.
		2. Jesus loves their godly lifestyle and their relationships that result from walking in humility. Paul referred to this as being ***well pleasing*** to the Lord (2 Cor. 5:9), and John referred to this when speaking of himself as “one of the disciples whom Jesus loved” (13:23; 20:2; 21:7, 20).
		God said something similar to Daniel, calling him “beloved” 3 times (Dan. 9:23; 10:11, 19).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한 생활 방식과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들과의 관계를 사랑하신다. 바울은 이것을 주를 **아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했고 (고후 5:9),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중 하나” 라고 언급했다 (13:23, 20:2, 21: 7, 20).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을 세 번이나 “사랑하는 자” 라고 부르셨다 (단 9:23; 10:11, 19).
	3. ***Manifest Myself to him***: Jesus linked obedient love to our capacity to experience God’s manifest presence (14:21, 23). A believer’s obedience does not earn God’s love, but it positions them to experience more of His love for them because they live in agreement with His heart and leadership. The implication of the phrase “I am in you” in 14:20 is described in 14:21 “Jesus moves in us by His manifest presence on our mind and emotions.” This is the normal Christian life.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순종의 사랑을 연관시키셨다 (14:21, 23). 믿는 자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리더십에 동의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한다.
	14: 20에 있는 "내가 네 안에 있다"라는 구절의 의미를 14: 21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당신의 현현한 임재로 우리 안에 운행하신다” 라고 묘사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1. Our capacity to receive and return His love increases as we increase our agreement with Him. Obedience brings our mind and emotions into agreement with Jesus’ heart—He is the most beautiful, fascinating, interesting, happy, and satisfied person who ever walked the earth.
		우리의 예수님과의 동의가 증가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답하는 우리의 능력이 커진다.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예수님의 마음에 동의하게 한다. 예수님은 이 땅을 걸으신 분 중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행복하고, 만족하신 분이시다.
		2. The nature of God’s love is that it increases when it is received and returned (Mk. 4:24-25).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다시 드릴 때 그 사랑이 증가 된다 (막 4:24-25).

24“With the sam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and to you who hear,
more will be given. 25For whoever has, to him more will be given.” (Mk. 4:24-25)
24…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25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 (막 4:24-25)

* + 1. Our spiritual capacity to see and feel love increases as we love God by obeying Him.
		The more we love God, the more capacity we have to “see and experience” God’s presence.
		하나님께 사랑함으로써 순종할 때 사랑을 보고 느끼는 우리의 영적 능력은 증가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증가된다.

8“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experience] God.” (Mt. 5:8)
 8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경험]임이요 (마5:8)

* + 1. As we draw near to God, He draws near to us by releasing a greater measure of His presence.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풀어 주신다.

8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Jas. 4:8)
 8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약4:8)

1. Jesus elaborated on His call to enjoy His manifest presence (Jn. 14:22-24)
예수님은 자신의 현현한 임재를 즐기라는 부르심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요 14:22-24)
	1. In 14:23, Jesus restated and elaborated what He said both in 14:15 and in 14:21. He added two promises—He promised *inclusiveness* by adding the word ***“anyone”*** instead of limiting this to the apostles. He promised the sense of *permanence* saying, ***“We will make Our home with you.”***
	Then Jesus stated the connection of obeying Him to loving Him in a negative way in 14:24.
	요14:23 에서 예수님은 14:15 와 14:21 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언급하시며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더 하셨다. 그분은 이것을 사도들에게 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포괄성**을 약속하셨다. 그분은 "**우리는 너와 함께 우리의 집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영구성**을 약속하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14:24에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연관하여 부정어 법으로 말씀하셨다.

22Judas (not Iscariot) said to Him, “Lord, how is it that You will manifest Yourself to us, and not to the world?” 23Jesus answered…, “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 an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24He who does not love Me does not keep My words; and the word which you hear is not Mine but the Father’s…”
(Jn. 14:22-24)
 22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23예수께서 대답하여 …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24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14:22-24)

* 1. ***If anyone loves Me***(14:23): When Jesus said “anyone,” He removed all barriers to this promise.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14:23): 예수님이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약속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셨다.
	2. ***We will come to him***: We will come to him spiritually to “rest” on his heart by Our presence.
	**우리는 그에게 갈 것이다**: 우리의 임재로 그의 마음에 “안식” 을 주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그에게 갈 것이다.
	3. ***We will make our home with him*** (Jn. 14:23): In 14:2, Jesus referred to mansions or dwelling places (Gr. *monai*, plural) that He would prepare in heaven for His people. In 14:23, He says He and the Father would first make their “home” (Gr. *monen*, singular) in Their people on the earth in a spiritual way by manifesting themselves to them—a “home” speaks of a *permanent* manifestation.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 14:23): 요14:2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 예비하실 맨션이나 거처(헬. **모나이**, 복수형)를 언급하셨다. 요14:23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아버지께서 먼저 그들에게 자신들을 나타내시는 영적인 방법으로 지상에 있는 그들의 백성에게 그들의 “집”(헬. **모넨**, 단수)을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집” 은 **영구적**인 현현을 말한다 .
		1. In 14:21, Jesus went beyond what He said in 14:15 and then in 14:23 He went even further when He answered Judas’ question about His 14:21 manifestation being physical. His answer was, “I and the Father will come to you to make Our home with you (spiritually, in this age).” We say, “Jesus, thank You. Show me more.” Spurgeon said, *“Little faith will take your soul to heaven, but great faith will bring heaven to your soul while on still on earth.”*
		요14:21 에서 예수님은 14:15 에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말씀하셨고, 14:23 에서는 14:21 에 나타나신 것이 육체적인 것이냐라는 유다의 질문에 더 나아가 대답하셨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와 아버지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와 함께(영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거처를 삼으리라”였다. 우리의 반응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보여 주세요." 스펄전은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지만, 큰 믿음은 아직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영혼에 천국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2. Isaiah spoke of God “resting” in His people instead of striving with them. The Spirit usually strives and wrestling with God’s people (Gen. 6:3). To rest or be at home is not a temporary encounter like a vision but speaks of God resting on our heart in a sustainable way (Isa. 66:1).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다투는 대신 그들 안에 “안식” 하신다고 말했다. 성령님은 대개 하나님의 백성과 다투고 씨름하신다 (창 6:3). 안식이나 집에 있다는 것은 비전과 같은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사 66:1).

1…“Heaven is My throne, and earth is My footstool. Where is the house that you will build Me? And where is the place of My rest?...2But on this one will I look: On him who is poor and of a contrite spirit, and who trembles at My word.” (Isa. 66:1-2)
1…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2…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사66:1-2)

* + 1. What Jesus said in 14:23 parallels what He said in Revelation 3:20 when Jesus promised to dine with us. He feeds us the truths and promises that He highlighted in John 13-17.
		예수님께서 14:23에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3:20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과 평행을 이룬다. 예수님은 요13-17장에서 강조하신 진리와 약속들을 우리에게 먹이신다.

20“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dine with him [his home], and he with Me [Jesus’ home].” (Rev. 3:20)
20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의 집] 그는 나와 더불어 [예수님의 집] 먹으리라 (계3:20)

* 1. Three important questions: In 4:5, ***Thomas*** asked,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in 14:8 ***Phillip*** asked, “Show us the Father”; in 14:22 ***Judas*** asked about “His manifest presence.”
	세 가지 중요한 질문: 4:5에서 **도마**는 "우리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라고 물었다. 14:8에서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라고 했고, 14:22에서 **유다**는 “예수님의 현현하신 임재”에 대해 물었다.
	2. ***The word you hear is not Mine*** (14:24) His teachings were revelations of the Father (12:49; 14:10). We are part of God’s eternal plan. We are not following a man’s religious movement in Israel. In other words, the purpose that Jesus called them to was much bigger than what they understood.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14:24).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계시였다 (12:49; 14:10).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안의 사람의 종교 운동을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이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
1. the Spirit will give supernatural understanding and peace (Jn. 14:25-27)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이해와 평안을 주실 것이다 (요 14:25-27).
	1. Jesus realized that the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much of what He had just taught them.
	So He promised them that they would understand His words later.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을 많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나중에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25“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while being present with you. 26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ings that I said to you. 27Peace I leave with you…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Jn. 14:25-27)
25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26보혜사 곧 …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27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요14:25-27)

* 1. ***Things I have spoken while being with you***: The phrase, “while being with you,” represents the few truths that were a top priority to Jesus to emphasize in order to equip them at that time.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한 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라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강조하신 최 우선되는 몇 가지 진리를 나타낸다.
	2. ***The Spirit will teach you all things***:Jesus elaborated on the ministry of the Helper spoken of in 14:16-17 by emphasizing that He would teach and bring to remembrance all things that Jesus said. Throughout our Christian life, the Spirit gives us various divine assignments and promises. Due to our human weakness, we do not remember things in our past that we promised to God that we would do. He reminds us of things that will matter most to us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은 14:16-17에서 말씀하신 보혜사의 사역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강조 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걸쳐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성한 임무와 약속을 주신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상기시켜 주신다.
	3. ***Peace***: Jesus promised peace as they did their part in not allowing trouble to dominate their heart.
	**평안:**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그들의 파트를 행할 때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다.
1. Jesus’ perspective of His death—Glory and loving obedience (Jn. 14:28-31)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의 관점 - 영광과 사랑의 순종 (요 14:28-31)
	1. Jesus exhorted them to agree with His view of His death and not only see it as separation from Him.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한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고 당신의 죽음을 당신과 분리되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28“You have heard Me say to you, ‘I am going away and coming back to you.’ If you loved Me, you would rejoice because I said, ‘I am going to the Father,’ for My Father is greater than I…
29I have told you before it comes, that when it does come to pass, you may believe [and not waver].
30I will no longer talk much…for the ruler of this world is coming, and he has nothing in Me. 31But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as the Father gave Me commandment, so I do. Arise, let us go from here.” (Jn. 14:28-31)
28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29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그리고 흔들리지 마라]30…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31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14:28-31)

* 1. ***If you loved Me, you would rejoice***: Jesus explained that their fear was partially a result of lack of love for Him. They should have rejoiced though it seemed like loss for them, but it was joy for Him.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기뻐하였으리라:** 제자들의 두려움은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결과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상실처럼 여겨질 지라도 기뻐했어야 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다.
	2. ***I have told you before it comes***: Jesus said these things in advance to strengthen the faith of His disciples who later understood Jesus’ death as fulfilled prophecy. Prophetic revelation shows us that God knows and is in sovereign control over the events and that they are important to His plan.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미리 이 일들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의 성취였음을 후에 이해할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함이었다. 예언적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사건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계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3. ***The ruler of the world is coming***: Satan came in the person of Judas bringing the Roman guards to arrest and kill Him with the full backing of Jewish political authorities within the next 24 hours.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사탄이 사람인 유다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 다음24시간 안에 유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로마 경비병들을 데려고 왔다.
	4. ***The ruler of this world has nothing in Me***: Satan had some control over the events in Jesus’ death but had no authority over nor access to Jesus who was voluntarily dying in God’s will (Rom. 8:32).
	**이 세상 임금은 내게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어느 정도 통제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자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어떤 권한이나 접근 권한이 없었다 (롬 8:32).

32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how shall He not with Him also freely give us all things? (Rom. 8:32)
32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롬8:32)

* 1.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God will vindicate My obedience in His time.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의 순종을 변호하실 것이다.